

해외저작권 전장의 '전위부대'들

출판사마다 저작권 전담요원 활약... 해외 출판정보 입수의 침범역할

외국 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고 계약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남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저작권업무 전담자를 따로 두는 출판사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원의 경우 영·미, 일본, 유럽 등 각 언어권별로 저작권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고, 민음사·김영사·한울·세종서적 등 몇몇 출판사에도 저작권 및 에이전시 관련업무 전담자가 1명씩 있다.

해외업무 전담 창구로 기능

87년 UCC가입 이후 국내 출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관련 업무가 한층 까다로워진 사정은 이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 중요한 요인.

번역도서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이 늘면서 계약경쟁이 치열해지고 계약 시기가 빨라진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에는 원고가 썩어지기 전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출판 기획이나 책 선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리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했다.

출판사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전담자들의 역할과 위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크게 차이가 없다.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고려원(대표 김낙천) 저작권 팀에 들어와 현재 영·미쪽 일을 맡고 있다는 김도연(30)씨는 "인터넷을 뒤지고 각종 신문이며 잡지, 에이전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출판정보나 신간 정보를 분석, 검토하는 것이 저작권 전담자들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고 설명한다. 저작권 담당자들은 이런 기초 정보를 토대로 기획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 책 선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국내 에이전시나 외국 출판사와의 직접 계약 업무도 이들 담당이다. 최근에는 선급금의 단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게 저작권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

각 출판사의 저작권 업무 전담자들은 폭증하는 해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다. 탁월한 어학능력과 출판 마인드, 정보력을 갖춘 이들이 앞으로 출판스카우터의 역할까지 해내리라는 기대다.

국내 출판사마다 해외저작권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의 활약이 크다. 사진은 지난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외국 에이전트들이 상담하는 모습.



려움. 때문에 외국 출판사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국내 출판시장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자사의 출판경향과 특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는다. 개인적인 자긍심은 있지만 늘 책을 사는 입장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끔씩 속상하기도 하다는 게 이들의 고백이다.

현재 각 출판사에서 저작권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학, 영문학, 불문학 등 전공이 각자 다르고 에이전시 근무 경력을 갖고 있거나 번역일에 종사했던 경우 등 경력도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무래도 탁월한 어학능력이다.

이들의 어학능력이 심분 발휘되는 곳이 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나 ABA 등 세계적인 도서전이 열릴 무렵이면 누구보다 먼저 준비작업으로 분주하다. 도서전에 나가 미팅할 출판사나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사전 연락을 취하고 그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체크한다.

가령, 계약한 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출판된 책에 대해서는 그 반응과 결과를, 그리고 국내 출판계의 흐름에 대한 정보 등을 미리 정리한다. 외국 출판사에서 준비중인 책 정보를 입수해 도서전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도 갖춘다.

도서전에서의 이들의 활약은 비단 특정한

책의 계약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탄탄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외국 출판사 및 에이전시 관계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 자사의 성격과 특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스카우터로서의 자질 요구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다 94년 김영사(대표 박은주)로 옮겨와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병국(28)씨는 "저작권 전담자들이야말로 출판사의 가장 전위에 서서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전사들"이라고 자평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해야 하고 어학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 외에도 정보수집력과 분석력,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인 욕구, 사교성 등 출판 중개인으로서의 전문적인 능력들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저작권 업무 전담요원에 대한 출판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세종서적의 장경학(37, 편집장)씨는 "사장이나 편집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일을 전문가가 담당하니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서 효율적"이라고 평한다. 전문가들의 등장은 에이전시 근무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임프리카 코리아의 김두환 차장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상식과 계약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고 자사의 성격에 맞는 책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담이 훨씬 덜하고, 계약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다.

저작권 전담자들은 해외 출판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침범으로, 소속 출판사의 성격과 이미지를 알리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대외창구로서의 역할도 맡는다. 민음사의 박병호 사장은 저작권 전담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에 하나를 더 보탠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 출판물의 외국 수출에 중개 역할을 할 스카우터의 구실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작권 전담자들이 맺은 외국 출판사나 에이전시와의 인간관계나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이, 국내 출판물의 외국 수출에 큰 힘을 발휘하리라는 기대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 박남정 기자